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의원 (협회종신회원, 14872)

◆ 프로필

- 제15·16·18대 국회의원
- 과학기술부 장관(前)
- 광주민주유공자
-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정책위의장/최고위원(前)
- 치과, 이해박는집 대표원장(現)

[특별인터뷰]

제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Q 하반기 지경위위원장 선출 소감 및 운영계획

A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을 때도 어께가 무거웠는데 이번에는 더욱 더 책임이 막중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자리에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식경제위원회를 이끌 계획이다. 첫째, 충분히 토론하는 분위기다. 지경위 위원들끼리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 토론회, 간담회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두 번째로, 늘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임위를 만들겠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우리 전기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지경위다. 토론회와 공청회도 자주 열고 늘 공부하는 상임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정부와 기업인,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부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Q 경제발전을 위한 지경위 역할

A 지난 2001년 과기부 장관을 지내면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마무리를 못했다. 이번에는 2년 동안 지밀하게 계획을 세워 할 수 있는 일을 200% 해내겠다는 다짐이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 지경위는 미래적 성격을 가진 상임위다. 저와 정치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중공업 육성정책이나, 정주영 회장의 자동차 산업,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첨단화, 정보화도 획기적인 전략이었다고 본다. 이제는 21세기 20년, 30년 후를 바라보고 경제 전략을 짜야한다. 지경위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한다.

Q 전기자격증 취득이 어떤 의미인지

A 지금은 국회의원이면서 치과의사다. 원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다니며 민주화운동을 했다. 우리나라 치대생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로 인해 감옥에 다녀왔다. 결국 학교에서 두 차례 제적당했고, 그러면서 노동운동에 몸담게 됐다. 그때 전기공사기사를 비롯해서 소방, 안전 등 분야에서 6개 자격증을 취득했다. 실제 전기기술자로서 현장에서 5년 동안 있었다. 젊었을 때, 여의도 태영, 유진빌딩 신축현장에서 일했다. 그 시절에 전자회사 검사원이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과기부 장관시절에도 의원활동을 하면서도 전기기술자로서 경험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Q 전기인 권의 중요성에 비해 가치 평가 절하됐다는 우려

A 최근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 전력기술인을 비롯한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기술인이 점점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기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전기·통신분야도 마찬가지다. 전문 기술인에 대한 투자와 육성 계획 없이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지경위 위원장 자리를 떠나서,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넓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Q 전력산업(전기계)의 발전을 위해 계획이나 마스터플랜

A 지금 전력산업은 현재 도약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원전 수출도 성과다. 발전 설비 상용화 기술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전력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 최근 전력산업 분야의 최대 이슈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에 시간과 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아직 위원장에 선출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

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임기 동안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전력산업을 비롯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 대해 세세하게 발전 전략을 만들겠다.

Q ‘따라오라 시여’ 등 시집으로 등단, 저서 중 시 한 소절 추천, 이유

A 어느 한 소절을 짚어서 소개하기보다는 이번에 나온 시집을 소개하고 싶다. 지난 5월에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으라”라는 시집을 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탐방하고 쓴 장시다. 이 시집이 최근 교보문고 시분야 베스트셀러 1위, 종합 7위를 했다. 4대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 외에도 정치적 순간순간마다 시를 썼었다.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 됐을 때와 정몽헌 회장,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조시를 썼다. 이라크 파병 때도 시를 써서 본회의장에서 낭독했고, 이 시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이라크에도 전해졌다고 한다. 우리 선조도 시를 통해 정치를 하지 않았나? 시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4대강을 가슴으로, 시로 기억하고 싶다.

Q 전력기술인들에게 메시지

A 전기는 모든 경제의 밑바탕이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전기를 필요로 한다. 전기 산업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정보화의 기본이 된 기간산업이다.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 전력기술인이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 자랑스롭다. 사회의 변화는 광속보다도 빠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기 에너지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전기산업 역시 이러한 변화와 보폭을 함께 해야 한다. 전기인들 이에 적극 참여하고 변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저 역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